

『창세기 24회: 창세기 22:9-24』

1. 희생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22:9-19)

9절-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 산에 이른지라~~” 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삭은 이 시점에 자신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강하고 빨랐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복종합니다.¹⁾ 이삭의 이런 복종은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흠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²⁾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11-14절,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할 때처럼 “천사”가 하늘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안다”라는 천사의 설명은 이 시련이 시험이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충성이 가진 깊이를 충분히 드러냈음을 알려 줍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성경의 언어유희를 만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레’입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이) 경외하다/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예레’입니다.³⁾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까? 이익을 따라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솟양을 찾아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취해서 제사

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377.

2)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235.

3)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50.

4)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594.

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 하시리라”라는 고백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예비하셨으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기쁨과 안도감에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건의 마무리를 감사로 드리려고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는 예정된 일들을 온전히 다 수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기 전까지 끝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소를 “여호와 이레”(여호와가 보셨다. 준비하셨다.)라고 명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소를 “아브라함 사마”(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주목합니다.⁵⁾ 우리 역시 인간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15-18절,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거나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시험하겠는가. 누가 굳이 자신 안의 간절함과 초조함을 들키고 싶겠는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시험한다. 사랑을 시험하는 자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이다. 시험하는 이인 신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는 시험당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자에게도 같이 주어졌다. 어떤 점에서는 그에게 더욱 주어졌다. 시험 결과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쪽이 출제자이기 때문이다. 시험받는 자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험이 사랑의 시험, 즉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가 상대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시험이므로, 시험하는 자가 사랑의 확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랑한 만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⁶⁾

5)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51.

6) 이승우, 『사랑이 한 일』(파주: 문학동네, 2020), 115.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맹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으로 맹세가 소개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⁷⁾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에 걸맞게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17-18절은 이전의 이야기에서 나온 아브라함 약속을 모아서 확대합니다.⁸⁾

- “나는 확실히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는 12장 2절의 서약에 “확실히”를 추가하였습니다.
- “하늘에 있는 별들”은 15장 5절에도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네 후손을 무수히 많이 만들 것이다”라는 약속이 추가됩니다.
- 아브람-롯이 헤어질 때, 티끌이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티끌을 반영하는 “모래”는 이곳에서 별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 “그들의 대적들의 도시들의 소유”(지역)는 처음 등장한 것이지만, 리브가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전의 약속들보다 땅의 언약을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화시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성취가 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⁹⁾

이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보증하시고 맹세하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었습니다.¹⁰⁾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시기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약속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시킨 이후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바른 행위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받는다고 오해할 정도로 말입니다.

심지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여호와와 복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확장될 것이라는 사

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53.

8)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79.

9)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238.

1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55.

실을 확증합니다.¹¹⁾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과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19절, 아브라함은 이제 브엘세바로 이동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독자는 이삭이 살았음을 알지만, 19절은 의도적으로 이삭을 제외하여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 긴장은 “이삭을 바치는 의도와 자발성은 이삭을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적으로 반응한 행동은 이삭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돌려준 외적 행동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¹²⁾

2. 나홀의 가족(22:20-24)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 나홀의 가족을 기록합니다. 나홀의 가족에는 이삭의 신부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신 결과 교회가 탄생한 것을 예표합니다.

나홀 계보는 이삭의 이야기와 똑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바예히 아하레 하데바림 하에레”(이 일 후에). 이 유사성은 이삭 이야기와 나홀 계보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이삭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시험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삭을 희생 제물로 결국에는 바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나홀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이후 나홀과 나홀의 자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홀이 변성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나홀에게도 복을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알림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확증이고, 하나님의 헌신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¹³⁾

※ 신약에서 창세기 22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11)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54.

12) Walters, *TJT* 3 (1987) 320.

13)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57.

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브리서 11장 17-1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셔서 불가능한 출산을 행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야고보서 2장 21-23절)

야고보에게 창세기 15장 3절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두 가지 설명을 함축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야고보는 구원을 위한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표시로서의 행위를 권고합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단지 지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삶은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원리로 라함을 설명합니다. 히브리 족장과 가나안 창기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지만, 둘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입니다.¹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희생 제물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배자에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더 이상 좋아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가진 좋은 것, 심지어 처음 태어난 생명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서 **처음 난 아들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셨고**(출 22:29), 또한 율법 안에서 **초태생을 구속할** 길을 제공하셨습니다(출 13:13, 34:20). 이스라엘에 진정한 예배는 희생의 예배입니다. 처음 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을 입증합니다.¹⁵⁾

우리가 예배자로 자란다는 것은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

14)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60.

15)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597.

는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시간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극히 좋은 분이심을 깨닫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